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가속도'

道, 2015년까지 10곳 설치 목표…30일까지 희망자 접수

전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퇴비·액비(물거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로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해 농경지에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농림식품부가 전국 3개소에 총 210억원(국비 30%·지방비 30%·융자 20%·자부담 20%)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도내 농업법인과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독려해 1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국비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23일 전남 축산위생사업소에서 시·군 및 양돈협회, 기술보유업체 관계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화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앞으로 도는 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공동 처리형과 농장형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 순천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추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야호~ 또 잡았다 해남군 문내면 주민들이 지난 22일 울돌목에서 뜰채를 이용, 숭어를 잡고 있다. 물살이 센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숭어떼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뜰채를 이용해 건져 올리는 이색 고기잡이 방법이다. /연합뉴스

뜰채로 잡는 숭어…손맛 '짜릿'

3~4시간 만에 200마리 잡기도…울돌목 관광코스 인기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를 흐르는 울돌목에서 이색적인 숭어잡이가 한창이다.

해남군 문내면 주민들은 물살이 센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오는 숭어떼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뜰채를 이용해 숭어를 건져 올리고 있다. 날이 맑고 물살이 센 사리에는 3~4시간 만에 200여 마리를 잡을 정도로 숭어떼가 갯바위 쪽으로 붙어 새까맣게 올라온다.

매년 4월 시작하는 숭어잡이는 문내면 주민들 사이에서 30여년전부터 시작됐으나 최근 이색 볼거리로 유명세를 타면서 우수영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내면 주민으로 구성된 울사모(울돌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비롯 이곳 주민은 4~7월 숭어잡이 기간에 직접 만든 뜰채를 이용해 관광객에게 숭어잡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남군은 울돌목 갯바위 주위에 데크를 설치, 숭어잡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영 관광지 저잣거리에 울돌목 숭어회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점을 개설, 관광상품화하기도 했다.

울사모 회원 허성운(61)씨는 "색다른 고기잡이 체험에 맛좋은 숭어회까지 먹을 수 있어 주말이면 인근 데크가 가득 찰 정도로 관광객이 몰린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완도 유기농 방울 토마토 만원 더비싸도 서울서불티

완도에서 생산된 유기농 '스마일 방울토마토'가 서울 가락동 농협 공판장에서 비싼가격에 팔리고 있다.

23일 완도 방울토마토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따르면 완도산 '스마일 방울 토마토'는 5kg 한 박스에 3만~3만5000원으로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1만원 정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연구회는 일반 방울 토마토와 차별화를 고민하던중 당도가 높고 완도의 이미지와 딱 맞는 스마일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마일 방울토마토'는 무농약 재배를 하고 해풍을 맞아 당도가 높으며, 색깔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당도가 9~10브릭스(Brix)로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2~3브릭스가 높고, 저장성 또한 7일로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완도 방울토마토 연구회 박상휴 회장은 "'빙그레 웃는 섬' 완도의 이미지에 맞는 방울 토마토를 잘 재배해서 소득창출과 함께 농산품으로 완도를 알리는데 한몫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앞으로 유기농 '스마일 방울토마토'를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노벨평화상 기념관 사료 확보 순조

목포시, 연세대서 350여점 인수 총 1300여점

목포시가 연말 '노벨평화상 기념관' 완공을 앞두고 전시사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23일 국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의 소장기록과 정보공유 ▲전시실 구성과 관련된 자문과 기획 ▲자료협조 ▲일부 사료에 대한 장기대여 ▲개관 이후 특별 기획전 ▲워크숍 공동기획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체결 후 김대중 옥중서신을 비롯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 350여점을 인수받았다.

그동안 시는 기념관 건립 초기부터 시 홈페이지와 전국 지자체에 대통령 관련사료 사진류, 박물류, 문서류 등을 총 망라해 기증과 대여, 매입 등의 방식으로 전시품 확보에 주력해 왔다.

시는 대통령 기록관·노벨재단·기록원 등으로부터 금 모으기 운동 관련 서류와 김대중대통령 노벨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 사진, 노벨 초상화, 노벨평화상 수상자 사진 등 총 1300여점을 확보했다.

또 노벨재단 측에서 노벨평화상 기념 메달 4점을 직접 제작해 기념관 개관에 맞춰 시에 인도할 예정이다.

정종득 시장은 "기념관이 내년 삼학도에 개관되면 목포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민주·평화·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의 맥을 이어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국비 90억원 등 사업비 190억원들 투입해 삼학도 복원화 지구내 부지 1만5600㎡에 지상 2층(연면적 4677㎡) 규모의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연말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061-270-8216)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농촌 어르신들과 행복 나눔

전남농협 경로당 271개소 '도우미'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농·어촌지역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운동'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농협 육성 여성조직인 고향 주부모임·농가 주부모임·부녀회 등 회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20개 시·군 경로당 271개소 에서 '경로당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 도우미'는 청소·세탁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말벗되기, 식사 대접하기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

또 회원들은 도우미 활동으로 모은 활동비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쌀과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우미 활동비는 국비에서 70%, 농협중앙회에서 30%를 부담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자녀와의 소통 이렇게

완도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완도교육지원청은 최근 완도 중앙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박은주 마음숲 상담소장을 초빙해 학부모들과 대화로 시작한 강연은 자녀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끌어내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경청과 소통을 배우는 장이었다.

'자녀 코칭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시작한 교육 자료 역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어떠한 모습의 부모가 돼야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좋은 관계를 연습하는 코칭의 기회를 마련해 줬다.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준비해야만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나-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장진숙 교육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